



2024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인문사회계 I 문제지

※ [문제 1]: [가]와 [나]를 참조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 [문제 2]: [가]와 [나]의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라]의 주요 인물의 태도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801~1,000자) [60점]

[가]

고자(告子)가 말하였다. “사람의 본성은 여울물과 같아서 동쪽을 터 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을 터 주면 서쪽으로 흐른다. 사람의 본성을 선이나 악으로 구분 지을 수 없음을 여울물에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자 맹자(孟子)가 말하였다. “물에 진실로 동서의 구분이 없지만 위아래의 구분도 없단 말인가? 사람의 본성이 날 때부터 착한 것은 물이 항상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으니, 사람이란 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없으며 물 또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법이 없다. 지금 물을 손으로 쳐서 이마 높이까지 튀어 오르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거스르게 하여 산 높은 곳에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일 뿐이니 사람이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 또한 이와 같다.”

(중략)

정약옹은 인간을 선험고자 하면 선할 수 있고 악하고자 하면 악할 수 있는 자유 의지, 즉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하늘은 인간에게 자주지권(自主之權)을 주어, 선(善)을 하고자 하면 선을 할 수 있고, 악(惡)을 하고자 하면 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이리 저리 움직여서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자주지권은 자기에게 있다. 이것은 동물에게 정해진 마음이 있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 자기의 공이 되고 악을 행하면 자기의 죄가 되는 것이니, 이것은 마음의 자주지권이며, 이른바 본성이 아니다. - 정약옹, 「맹자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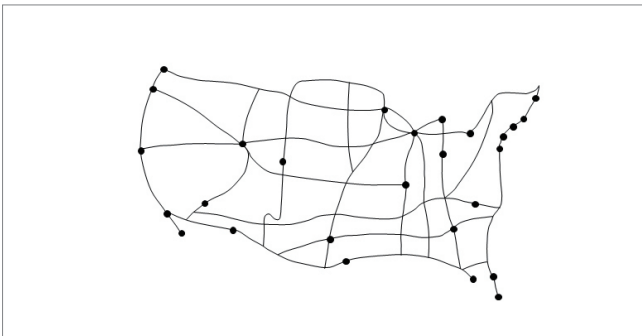
정약옹은 자주지권을 바탕으로 도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성리학과 달리 덕을 인간의 선천적 본성으로 보지 않고, 일상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선을 따르기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어렵고, 악을 따르기란 언덕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쉽다.”라는 말로 일상에서의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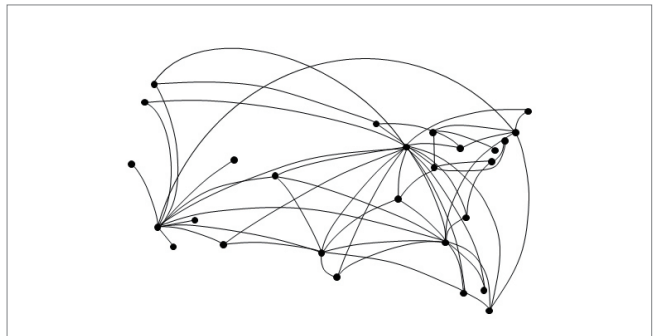
[나]

실제 세상인 사회와 가상 공간인 인터넷을 비교한다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둘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둘을 한 가지 틀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두가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란 점과 선으로 연결된 형태를 말한다.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개인들 하나하나가 점이 되고 그 개인의 사회관계가 선이 되어,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등이 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된다. 인터넷에서는 점이 컴퓨터이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랜 케이블이나 기기를 연결하는 전자기파가 선이 되어, 결국 점과 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된다.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점을 ‘노드(node)’라고 하고, 선을 ‘연결선’이라고 한다.

네트워크는 생긴 모양에 따라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와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다.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연결되는 선의 수가 거의 균일한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연결되는 선이 몇 개의 노드에 집중되는 ‘허브(hub)’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한다. 척도가 없다는 것은, 평균 연결선 개수를 쉽게 정할 수 있는 고속도로망과는 달리 항공망에서는 각 노드를 연결하는 선의 개수가 적은 노드부터 연결이 많은 허브까지, 분포가 넓어서 특정한 숫자(척도)를 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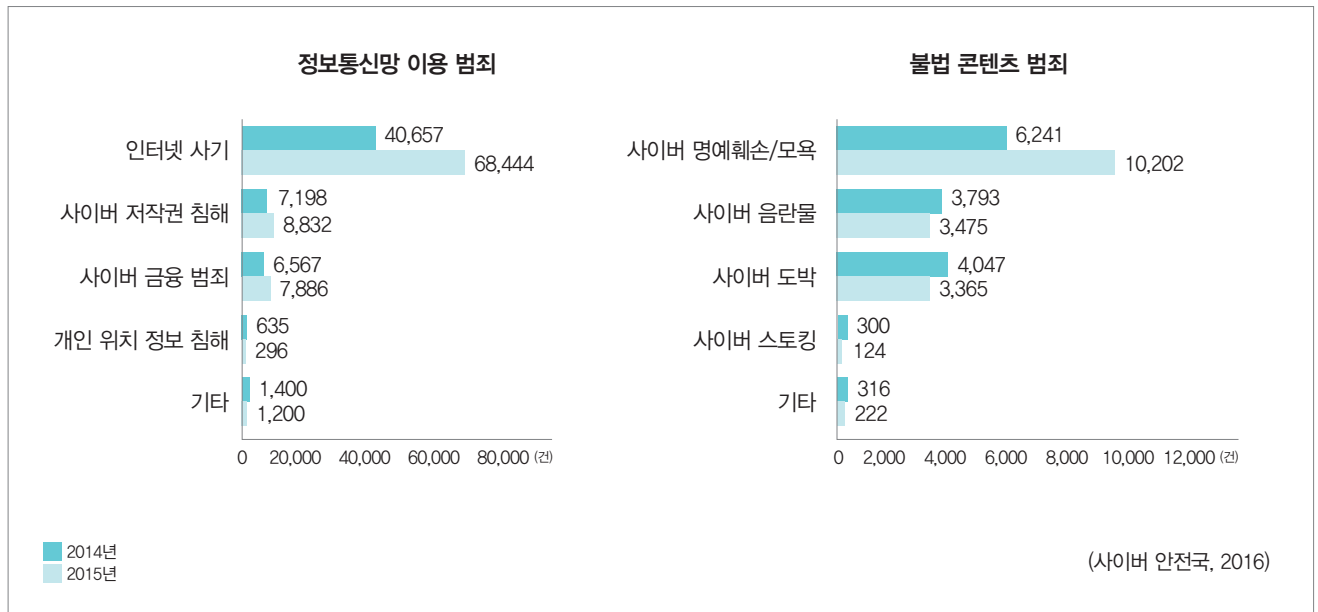


▲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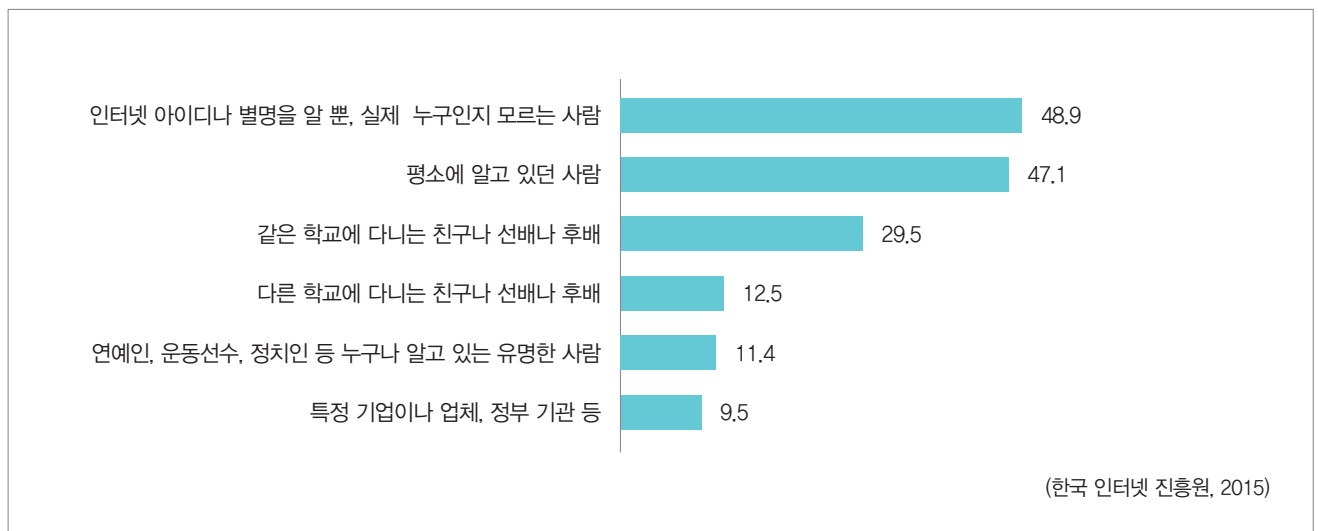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네트워크로 표현해 보면 많은 경우 복잡한 형태인 항공망 같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가 된다. 그래서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항공망처럼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될까? 논문을 쓸 때 연구자들은 유명하지 않은 논문보다는 유명한 논문을 인용하고 싶어 한다. 한번 유명한 논문이 되면 그 논문은 계속해서 더 많이 인용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논문 연결선이 많아지는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누리 문서라든가 친구 관계에도 마찬가지이다.

-고등학교 「독서」

[다]



[도표 1] 정보사회의 사이버 범죄



[도표 2] 학생의 사이버 폭력 피해 대상(중복응답(단위: %), 2015년)

-고등학교 「통합사회」

[라]

※ 앞부분 줄거리: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국군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좌익 반군들은 순천까지 그 세력을 확대한다. 20일에는 남로당 조직에 연결되어 있던 벌교 지역 좌익 세력들까지 반군에 합세하여 벌교를 장악한다. 빨치산인 염상진은 부하들을 이끌고 경찰서를 습격한다. 그리고 그날 학병으로 참전했다 돌아온 김범우를 찾아와 피신할 것을 권한다. 김범우가 피신해 있는 동안, 지주인 아버지 김사용은 인민재판에 불려 나간다.

김범우는 숨을 몰아쉬며 회전을 시작하려는 감정에 제동을 걸려고 애를 썼다. 자신의 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과 같은 절망의 벽이 아니라 죽음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정신 바짝 차린 문 서방이 가져오는 소식을 대하며 김범우는 절망감에 휘말리고 있었다.

“작은서방님, 작은서방님, 어르신네가, 어르신네가 살아나셨구만요, 살아나셨다니게요.”

문 서방이 사립문을 차고 들며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

“무슨 소리요, 문 서방!”

“궁께 머시냐, 이, 이, 인민재판*에서…….”

김범우는 전신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허탈에 빠져 비칠비칠 주저앉으며 말했다.

“자세히 얘기해보시오.”

“궁께, 어르신 차례가 되었는디, 위메 참말로 환장허것등거. 어르신네는 두 눈 딱 감고 단상에 꼴뽕허게 스셨는디, 누가 벌떡 일어남스로 소리 질르기를, 김사용은 지주지만 인민의 적은 아니다. 큰아들 범준은 독립투사고 김사용은 독립 자금을 댔다. 인민의 피를 제대로 쓴 것이다. 고것만이 아니라 큰아들 김범준은 해방되고 3년이 지난 지끔꺼정 소식이 읊다. 못힐 말로 죽은 것이라면 조국 독립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라고 지주 김사용은 작인*들한테 질로 후허게 헨 사람이다. 고건 시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렇게 김사용은 숙청에서 빠져 헨다, 고 허드랑께요. 그 말을 위원장이 접수헨다고 발표허고는 또 모인 사람들한테 위뫼게 혈랑가 묻드만요. 위메, 고때 사람 미치것등거. 곤디 여그저그서 웁소, 웁소, 허는 소리가 터집스로 박수를 안 치겼소. 위메 나는 이때다 싶어 목구녕이 찢어져라 웁소, 웁소, 소리 질르고 손바닥이 떨어져 나가그라 박수를 쳤구만요. 그래서 어르신이 화를 면허시고 단상을 내려오시는디……. 지가 쫓아가 어르신을 부촉헿시로 올매나 죄시럽고 눈물이 나든지…….”

문 서방은 목이 잠기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 문 서방의 그지없이 착하고 선량함이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고맙소, 문 서방, 너무 애썼어요.”

김범우는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다.

“무신 당췌는 말씀이시디요, 정작 고마운 사람은 따로 있제라. 어르신 구할라고 나선 그 하대치란 사람 말이어라우.”

하대치, 귀에 익은 듯한 이름이면서도 딱히 잡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요?”

“하매 작은서방님도 알 성불른디요. 위원장 염상진얼 그림자맹키로 따라댕김서 빨갱이 허다 징역살이도 항께헨…….”

“아, 알았어요.”

김범우의 기억 저편에서 흐리게 떠오르는 사내가 있었다. 얼굴 생김은 거의 기억이 없고 키가 작은 다부진 체격에 꼭 돌덩이 같은 인상을 풍기던 사내였다. 염상진이 출감해서 돌아오던 날 역에 마중 나갔다가 보았던 것이다.

“하대치 그 사람이 어르신네 소작을 부친 것도 아니고, 무신 은혜를 입었다고 그리 발 벗고 나섰는지, 참말로 물을 일이랑께요.”

문 서방은 영문을 몰라 하고 있었다. 그건 염상진이 꾸민 완벽한 연극이었다. 그러나 대사로 사용된 아버지의 행적까지 연극은 아니었다. 그건 있는 그대로였다. 남들과 똑같이 체포를 해 가고, 인민재판에 회부하고, 부하를 시켜 발언하게 하고, 그리고 석방시키는 과정을 거친 염상진의 의도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았다. 공적인 목적과 사적인 정리(情理)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었다. 객관적으로 별로 흠잡힐 데 없는 아버지를 인민재판을 거쳐 석방시킴으로써 자기네들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널리 선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주들을 처단하는 확실한 이유 설명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의 어린 날로부터 따뜻한 정과 깊은 이해를 베풀어 온 아버지를 떳떳하게 보호하고 싶었을 것이다. 한 번의 행위로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충족시킬 줄 아는 염상진, 그는 역시 단세포가 아니었다.

“헨디 말이요, 서방님. 인민재판이라등가 먼가가 끝나고 죄이는 굿판이 벌어졌는디, 위메 징허기도 허고…….”

“어디서 말인가요?”

김범우는 문득 생각에서 깨어나며, 한결 느긋해진 태도로 말하고 있는 문 서방에게 눈길을 돌렸다.

“워디긴 워디어라, 북국민학교 마당에서 인민재판을 끝내고 그 질로 소화다리로 끌고 갔구만이라. 사람덜이 벌 떼맹키로 모였는디, 사람덜한테 귀경시키대끼 줄줄이 세워 놓고 죄였당께요.”

“문 서방도 그걸 구경헿단 말이요?”

“하먼이라, 징허기는 헿어도 그건 돈 내고도 못힐 존 귀경거리였는디요.”

“그게 무슨 소리요, 문 서방. 남들은 죽어 가는데 그걸 보고 좋은 구경거리라니.”

김범우의 음성은 뜨거웠고 눈 가장자리에는 파르르 경련이 일어났다.

“존 귀경거리고말고라. 죄는 진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고, 즈그놈덜이 평소에 **윙**이 사는 사람덜 아프고 씨린 맘 몰라주고 행투* 고약하게 해 감서 배터지게 묵고 살았응께 그렇게 당혀서 싸제라. 고것들이 하나씩 죽어 자빠지는데, 씨영쿠* 잘됐다. 씨영쿠 잘되었다. 허는 소리가 속에서 절로 솟기드만요. 고런 맘이 워디 나 혼자뿐이었을라디여. 말을 안 헛응께 그렇게 귀경허는 전부가 다 똑같은 맘이었을 꺼구만이라.”

문 서방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있었다. 그의 눈은 증오로 타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범우는 하나의 악마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머금던 아까의 그 착하고 선량하던 모습은 간 곳이 없었다. 김범우는 섬뜩하게 끼쳐 오는 두려움을 느꼈다.

“문 서방, 애썼어요. 그만 쉬도록 해요.”

김범우는 땅바닥을 내려다본 채 중얼거리듯 말했다.

문 서방이 돌아서고 나서도 김범우는 의식의 공백 속에 빠져 있었다. 그는 사고(思考)를 정리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전혀 다른 두 모습의 문 서방, 그 어느 쪽이 진짜인가.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표변할 수 있는가. 그 어느 쪽이 진실인가.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이중적일 수 있을까. 그때 퍼뜩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있는 자들은 자기들만 사람인 줄 알지. 더러 그렇지 않은 우등생도 있지만 말야. 난 그 단순한 자만을 고맙게 생각하네. 거기에 우리가 설 자리가 있고, 그제 그들 스스로가 빠져들어 갈 함정이니까.”

염상진의 말이었다. 그렇다, 인간은 복합적 사고와 다양한 감정의 줄기를 소유한 동물이다. 문 서방의 전혀 다른 두 모습은 그런 인간의 속성이 표출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 모습은 다 문 서방의 참모습인 것이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외부의 영향과 상황에 따라 그것은 반응하는 것이다. 문 서방은 아버지에게는 선한 인간으로 반응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한 인간으로 반응한 것뿐이다. 만약 아버지가 악한 지주였다면 문 서방은 여지없이 악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 서방의 악은 악이 아니라 선인 것이었다. 염상진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확대되어 오고 있었다.

문 서방은 연거푸 이틀을 끔찍한 소식만 가지고 왔다. 김범우는 속이 메스꺼리다 못해 생목*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견뎌 내며 문 서방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죽이는 자와 죽는 자가 대치한 현장, 그 빛과 어둠으로 양분된 극단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현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던 것이다.

“소화다리 아래 갯물예고 갯바닥예고 시체가 질펀허니 널렸는데, 아이고메 인자 장혀서 더 못 보겠구만이라. 재미가 오진 싸까쓰*도 똑같은 거 두 번씩 보면 질리는 법인디, 사람 찍이는 거 날이 날마동 보자니께 환장허겠구만요. 그라고, 그 사람덜이 가난허고 배끓는 사람덜 편이랑께 나쁠 것은 없는데, 사람도 지각각 죄도 지각각이라고, 사람마동 진 죄가 달불* 것인디 워째서 마구잡이로 찍이기만 허는지, 날이 갈수록 그 사람덜이 무서짐스로* 겁이 살살 난당께요.”

김범우는 놀란 눈으로 문 서방을 건너다보고 있었다. 그건 바로 염상진이 빠지고 있는 함정이었다. 염상진이 문 서방의 말을 들었으면 무어라고 할 것인지 궁금했다.

* 인민재판: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 대신 인민이 뽑은 사람이 대중 앞에서 그들을 배심으로 삼아 재판, 처결하는 방식의 재판

* 작인: 소작인.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람

* 행투: 행티. 행짜(심술을 부려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부리는 버릇

* 씨영쿠: ‘시원하게’의 방언

* 생목: 제대로 소화되지 아니하여 위에서 입으로 올라오는 음식물이나 위액

* 오진: 마음에 흡족하게 흐뭇한

* 싸까쓰: 서커스

* 달불: ‘다를’의 방언

* 무서짐스로: ‘무서워지면서’의 방언